

녹색축산을 통한 새로운 이정표 제시

본 고는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각 도·시·군 등 지자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축산관련 기관을 찾아 매월 릴레이 형식으로 탐방을 통해 지자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달은 전남도청의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병선(55) 축정과장을 만나 전라남도의 활동상황 및 양계정책 방안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천혜의 옥토 전남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환기 등으로 가축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어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이며, 가축질병 발생이 적어 안정적으로 축산업

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삼계탕, 오리 등을 도계(압), 처리할 수 있는 계열화 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관련 사육업자들에게는 처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원거리에 있어 물류비용 증가와 가축 운송 시 스트레스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축사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악취문제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의 양계산업 규모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365농가(육계 218, 산란계 119, 종계9)가 총 1,760만수(육계1,310, 산란계 430, 종계 20)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14,400만수)의 12.2%로 5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호당 사육수수는 51,000수로 전국(38,00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서도 규모화가



▲ 전남도청 축산행정을 담당하는 안병선 과장



▲ 전남 무안군 삼향면에 위치한 전남도청 전경(2005년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발전이 곧 경쟁력

전라남도의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병선 과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양계와 인연을 맺을 정도로 양계업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인 70년대초 A형 3단의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이 비치된 학교 실습장에서 3년 동안 닭과 함께 지낸 것이 큰 경험이 되었다. 당시 점등 사육은 물론 난각 색도, 양계질병 연구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닭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알게 되었고, 특히, 점등사육은 획기적인 사양기술이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을 켜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료도 클로버와 알팔파 등을 배합해 지금의 친환경 양계를 실현했었다는 안병선 과장은 알팔파를 섞은 사료를 먹은 닭은 색도가 진하게 나왔던 기억도 떠올렸다.

육계사육에 있어서는 온도를 잘못 조절해 닭들이 몰려 암사하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었다고 한다. 특히 닭들이 항문을 쪼는 카니발리즘(한번 쪼으면 여러마리가 덤벼들어 쪼는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 안과장도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닭에서 배웠으며, 지금도 이러한 교훈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식을 정립했고, 졸업 후 공직에 입사해 축산기술연구소 검사과장(1998)을 거쳐 1999년부터 전남도청 축정과에서 축산물유통, 위생, 축산업무를 수행하다 2006년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승진되어 잠시 머물다 금년 고병원성AI가 발생되면서 과장승진과 함께 다시 복귀하면서 전남도의 축산행정을 아우르고 있다.

전남도청 축정과는 안병선 팀장을 위시하여



▲ 전남도청 축정과 가족들(아래 가운데 안병선 과장)

축산정책팀(팀장 윤창호), 친환경축산팀(팀장 문만), 축산방역팀(팀장 권두석), 가공유통팀(팀장 하창호)이 일사분란하게 축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AI 상시방역 체제에 돌입하면서 축산방역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도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녹색축산 5개년 계획(2008~2012)에 의거 친환경축산팀의 업무도 크게 늘면서 각 팀별로 일손이 부족할 정도이다.

녹색축산 5개년 계획 추진

최근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존 케이지에서의 사육을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가 축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남도청 관계자들은 천혜의 환경에서 가축의 복지를 기하고 안전성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녹색축산을 금년부터 5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안병선 과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밀집사육에 의해 닭들이 면역

력이 약해져서 발생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하고 전남에서 추진하는 녹색축산이 전국의 표본이 되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이미 금년부터 운동장을 확보

하고 동물복지 차원으로 사양관리가 이루어지는 농장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 방침을 보면 가축을 생산에서 도축까지 전 과정을 동물복지에 의해 생산하되 동물복지에 참여하는 농장에는 직불금을 지급해 주고, 장기저리 용자 및 이자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동물복지 축산, 축사시설 개선사업,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축산 제도기반 정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투자되는 총 비용만 해도 5년간 4,465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계획이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2,330억원), 동물복지(696억), 축산환경사업(1,436억원)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도에서 양계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도 다양하다.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 친환경축산 물인증비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무항생제축산물생산지원, 가축항생제 대체시험사업, 축사활기시설개선 컨설팅 사업, 미생물발효사업 기 지원,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시설, 양축농

가 HACCP 컨설팅비용 지원, 축산농가 방역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ACCP 기준원에서 인증해 주는 친환경인증 사업 뿐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인증해 주고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도 적극 펼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중앙정부와 양계인들의 협조 필요

안병선 과장은 전남도청에서 친환경축산물 생산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정부나 양계인들에게 더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현재 전남에서는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부터 친환경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3%의 이자로 지원 되는 것을 1%로 낮추어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가에서도 친환경 축산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나 도의 지원만을 기대하지 말고 배합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생산비 절감 및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



Y&J 양심 & 정직 자동화 계사 물청소 전문

양계장 물청소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이제 Y&J로 연락주십시오

대표 : 양승호

사무실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796

전 화 : (055) 963-7264

휴대폰 : 010- 5137-7264

팩 스 : (055) 963-7265

010-9388-7264

